

<2013년도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 해양사 부문>

고려 말 왜구 침입과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이도원 *

〈목 차〉

- I. 머리말
- II. 14세기 왜구 출현의 배경
 - 1. 14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 2. 일본 정치의 혼란과 규슈지역의 분열
- III. 왜구의 침입과 조운체계의 붕괴
- IV. 고려의 초기대응 실패와 문제점 인식
 - 1. 고려의 대(對) 왜구 군사대응의 실패
 - 2. 외교적 대응방식으로 변화와 문제점 인식
- V. 해양방어(海洋防禦)의 재인식과 적극적 대응
 - 1. 해양방어론의 대두와 수군의 재편
 - 2. 방어체계의 재정비와 성과
- VI. 맺음말

* 명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I. 머리말

고대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제(諸) 국가들은 바다에서 활발한 교류를 했다. 육로가 가로막혀 통하지 않을 때에도 바다로는 닿을 수 있었다. 바다는 각 국가를 연결해주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지만 전략상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는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고려도 해양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후삼국통일을 이룩한 국가이다.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주(羅州)를 확보했고 이로써 서해안 지방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서해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후백제¹⁾를 배후에서 위협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해상 활동을 통제하면서 후삼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²⁾ 하지만 건국 이후 오랫동안 해양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았던 탓에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11세기 동해에 여진 해적이 출몰했을 때에도 본격적인 함대 배치에 4년이나 걸린 것은³⁾ 분명 해양방어의 중요성 인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고려의 주요 외침은 북방 이민족의 침입이었다. 따라서 해양방어보다는 육지 방어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4세기 말 왜구의 고려 침입으로 다시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가 14세기 왜구의 침입을 받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았다. 고려의 적은 거란·몽고·여진 등 주로 북쪽 이민족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은 고려가 기존에 겪은 외침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북방 이민족과의 전쟁이 잦은 탓에 고려군의 중심은 대부분이 육군이 중심이 되었으나 고려 후기 원(元) 간섭기에 들어서서는 군사제도가 견제와 통제에 의해 왜곡, 변질되었고 고려의 독자적 군사력 유지는 불가능한 상태였다.⁴⁾ 독자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수군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1) 『高麗史』卷2, 世家, 太祖2, “十五年…九月 甄萱遣一吉祭相貴 以舟師入侵禮成江 焚塩白貞三州 船一百艘取 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고려사의 사료를 살펴봤을 때, 나주를 빼앗긴 후백제는 전세 역전을 위해 수군을 활용해 상대를 견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고려뿐만 아니라 후백제도 수군을 보유하면서 전략적으로도 적극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신성재, 「태봉의 수군전략과 수군운동」, 『역사와 경계』75집, 2010, pp.218~222.

3)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이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30호, 고려사학회, 2008, p.97~98.

4) 權寧國, 「고려말 지방군제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창간호, 한국중세사학회, 1994, p.237.

왜구는 바다를 통해 진입하므로 어느 때보다 수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충렬왕대에 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군을 해산하는 사건이나⁵⁾, 수군을 토목 공사에 사용하는 등⁶⁾ 해양방어를 위한 수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왜구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었다.

왜구 침입 초기에 고려가 주로 했던 대응은 진수군(鎭戍軍)을 증가하는 방식⁷⁾, 혹은 외교 사신을 통한 교섭으로 왜구를 막는 등 중앙정부의 대책은 소극적 대응이었다. 하지만 침입 시 지역 방어를 하거나 외교적 교섭으로 왜구를 본질적으로 근절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인들은 인식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막고⁸⁾, 왜구의 본거지를 공격해야한다는 ‘공격적 대응’이 대두한다. 고려 조정 내에서 이른바 해방에 대한 인식이 등장한 것이다. 사실 해군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공민왕(恭愍王) 원년(1352)에 이색(李穡)의 주장도⁹⁾ 있었으나 실제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 왜구의 침입 횟수와 피해가 늘어나자 해방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공민왕 22년에 우현보(禹玄寶)등의 상소¹⁰⁾를 계기로 해양방어(海洋防禦)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은 확립된다. 그러나 왜구에 대비한 군사조직의 정비나 신무기의 도입·실행 등은 시간이 필요했고, 따라서 해방(海防)이나 직접 공격과 같은 적극적 대응은 우왕(禡王) 대에 들어서야 실현되었다.

최근의 왜구연구에 대한 성과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다.¹¹⁾ 하지만, 대부분의 연

5) 『高麗史』 卷28, 世家, 忠烈王 4年 3月 壬辰, “以譖元者皆 籍叛入江華 故命罷船兵.”

6) 『高麗史』 卷32, 世家, 忠烈王 33年 6月 丙午; 『高麗史』 卷33, 世家, 忠宣王 卽位年 11月 辛未,

7) 진수군·진수처에 대한 연구는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 『사학연구』 38, 한국사학회, 1984, pp.131~138. 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8) 『高麗史節要』 卷29, 恭愍王 23年 正月.

9) 『高麗史』 卷115, 列傳, 李穡, “...海戰之術 則臣以爲 本國三邊控海島居之民 無慮百萬, 方之泳之是其長技其人 又不以耕桑爲事 而以漁鹽爲利, 比因此賊離 其居失其 利怨之心 比之陸居豈止十倍, 馳一騎奉條畫 沿江召募 必其賞 賚數千之衆.”

10) 『高麗史』 卷115, 列傳, 禹玄寶, “議者以謂 賊善舟楫 不可以水戰 若造船艦 是重困吾民 是不然, 水賊不可以陸攻 其勢明甚 且攘賊禁暴 本欲爲民 其可念小弊於民 而貽大患於國乎. 今東西江 並置防守 賊泛海揚揚而來 我軍臨岸拱手而已 雖精兵百萬 其如水何哉, 宜作舟艦 嚴備器仗 順流長驅 塞其要衝 賊雖善水 安能飛渡, 倘得勢便 擒捷掃蕩 亦可必也.”

11)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왜구 연구는 한층 활발해졌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대해서 좀 연구 주제가 세분화 되었고, 일본 내부의 정세와 이를 연결하는 시도도 지속되었다. 주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金普漢,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문화사학』 22호, 한국문화사학회, 2004.

朴宗基,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제 24호, 한국중세사학회, 2008.

이영,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黨) - 우왕 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4집, 일본사학회, 2006.

_____,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 : 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구는 왜구의 침입(침입의 원인규명)과 그 영향(고려의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¹²⁾ 또 고려 수군에 대한 연구는 사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 성과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¹³⁾ 이런 이유로 왜구 침입에 대한 해양방어의 중요성 재인식과 관련된 연구도 부족하다.

고려 말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은 한국 해양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려 후기 수군의 유명무실화 이후 왜구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국가 경제의 중심인 조운체계가 붕괴 상태까지 다다랐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 고려 정부는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수군을 재정비하고 화약생산을 위한 화통도감(火筒都監)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對) 왜구 방어체계를 형성한다. 이로써 해양 전투에서 고려군이 왜구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 전세를 대등하거나 우세하게 이끌 수 있었다. 이에 더 나아가 왜구의 근원지를 공략하는 자신감까지 얻게 된다. 이후 고려의 수군은 조선(朝鮮)에도 이어져 대마도 정벌과 같은 군사적 작전을 성공하는 강한 수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조운체계의 붕괴와 군사 작전의 실패로 그

_____, 「고려 말 왜구와 남조-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1집, 한일관계사학회, 2008.

_____,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구수 정세 -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尙)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9.

_____, 「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6호, 한일관계사학회, 2010.

_____, 「오호바루(大原原) 전투(1359년)와 왜구 - 공민왕 6-8년(1357~59)년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1집, 일본사학회, 2010.

_____, 「원명(元明)의 교체와 왜구 - 공민왕 15년(1366) 금왜사절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3집, 일본사학회, 2011.

_____,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12) 한편, 최근에는 왜구의 원인이나 침입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왜구 침입 시기 지방사회와 관련된 연구도 있다.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영,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호, 한국중세사학회, 2007; 朴宗基,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제 24호, 한국중세사학회, 2008; 최연주, 「14세기 왜구의 경상도 侵寇와 書籍간행」, 『일본근대학연구』 제35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2; 채웅석, 「여말선초 四川 지방의 埋香活動과 地域社會」, 『한국중세사연구』 20호, 한국중세사학회, 2006; 한정훈, 「고려 후기 漕運制의 운영과 변화」, 『동방학지』 제5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13) 14세기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서 수군에 대한 연구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고려 수군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남규, 「고려의 수군제도」,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1983; 권영국, 「고려말 지방군제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창간호, 한국중세사학회, 1994; 노영구, 「조선초기 水軍과 海嶺職의 변화」, 『한국사론』 33, 1995; 이창섭, 「고려 전기 수군의 운영」, 『사총』 60,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5.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고려 정부가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적극적 대응으로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을 연구하고자한다.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해양 방어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14세기 국제정세의 변화와 왜구의 발생을, 3장에서는 왜구의 조운선 약탈로 인한 그 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왜구에 대한 고려의 초기 방어의 실패와 관련해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을 차례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고려의 적극적 대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육지팽창을 통한 국가의 권익을 확보 할 수 없는 현대에 들어서서는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근대 시대 혹은, 19~20세기 제국주의 팽창 시기와는 달리 현시대는 물리적 힘을 가지고 외부로 진출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 영토의 치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논리대로 해양영토를 주장하고 있다. 섬나라가 아니지만 남북의 분단 속에서 한국은 섬나라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 해양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고려 말 왜구 침입은 당시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던 해양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시대는 앞서 언급했듯이 해양 영토의 갈등이 첨예하다. 이런 시기에는 해양 방어의 중요성을 잠시라도 잊는 순간 육지의 안전도 보장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과거 역사속의 해양방어의 중요성 인식과 그에 따른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한반도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II. 14세기 왜구 출현의 배경

1. 14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13세기 동아시아의 정치 체제는 중앙 집권적 성격을 보이고 있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몽골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 원(元)이 세워져 중앙집권 통치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운영을 했고, 일본은 형식상의 조정(朝廷)과 실제 국정운영의 주체인 막부(幕府)로 이원화 되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막부를 중심으로 지방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14세기 들어서면서 고려 주변 국가들의 중앙 집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원 왕조는 소수의 이민족이 다수의 한족을 강압적인 형태로 통치하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몇 세기에 걸친 왕조로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한족을 힘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원 왕조는 내부에 항상 반란의 불씨를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었다. 14세기 중반 자연재해가 증가하자 이민족 지도층을 향한 불만이 터졌고 한인 세력들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1368년 원의 대도(大都)가 주원장의 명에게 점령되면서 원 제국은 붕괴되고 중국에는 한족 왕조가 다시 들어섰다. 이후 1388년 복원이 멸망하기 전까지 명과 원은 계속 대치상태였지만 이미 원 제국은 과거의 모습을 되찾아 가는 늦었다.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가 성립된 이후 외교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막부가 가지고 있었다.¹⁴⁾ 실권을 막부가 가지고 있었지만, 형식상 막부는 조정의 하위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어 언제나 교토 조정에서 권한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 막부 중심의 중앙 집권형태가 붕괴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즉, 원이 소수민족의 다수 지배와 같은 내부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듯 일본도 막부체제의 정당성이 조정에서 나온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막부 내부의 힘이 교토조정을 억누를 정도로 강력할 때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1333년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으로 증명되었다.

위의 두 국가와는 달리 고려는 중앙정부가 위협받고 있지는 않았다.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모순이 계속되고 있었고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하는 대농장 확대나 중앙정치의 전횡 등이 보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를 위협하는 지방 세력의 반란이나 대규모 민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따라서 주변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중앙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원의 혼란기에 중국 남동부의 한인(漢人) 세력이 빈번하게 고려에 사신을 보내고 방물을 바치면서 세력으로 연합하고자 하였는데, 이들 한인 세력들은 고려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자 했다. 고려와의 연합을 꾀한 이유는 원의 세력을 줄이는 동시에 각 지역에 옹거한 한인 세력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신의 안정적인 동맹국을 늘려 세를 과시하고 실질적으로도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외교적 교섭을 한 것으로 보인다.¹⁵⁾

14) 13세기 일어난 조정과 막부의 다툼인 조큐의 난(承久の亂) 이후로 주도권이 완전히 막부로 넘어간 이후 조정은 권한이 없었고, 고사가덴노 이후 왕위 승계과정마저 막부에 일임하면서 사실상 막부가 일본 내부의 명실상부한 중앙 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지역에서 중앙 집권이 붕괴 되었다는 점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다. 특히 1350년부터 향후 반세기 가까이 고려 국가의 기반을 흔들게 되는 왜구의 출현도 이런 국제정세의 혼동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왜구가 출현하게 되는 주요한 배경인 일본 정치의 혼란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2. 일본 정치의 혼란과 규슈지역의 분열

14세기 일본 정치의 혼란은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과정부터 뒤이은 남북조(南北朝)로 조정이 나뉘는 일련의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남북조의 쟁란은 1392년에 양조(兩朝)가 통일되기까지의 시기인데, 이때까지가 고려 말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일본의 정세를 살펴보는 것은 왜구 발생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¹⁶⁾ 따라서 여기에서는 남북조로 조정이 나뉘기 직전부터 남북조시기까지 일본의 정세와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 헤이안(平安)시대 이후 세워진 막부는 국가의 경찰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분쟁 조정과 토지 소유의 승인 등 사실상 국내 정치를 운영하는 기관이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조정의 하위 기관이었다.¹⁷⁾ 하지만 실질적인 정치·군사력의 대표기관

15) 한인 세력들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거나 방물을 바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7年 5月 庚子;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7年 7月 甲子;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8年 4月 辛巳;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8年 8月 戊辰;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9年 3月 丙辰;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9年 7月 丙子;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10年 3月 丁巳;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10年 7月 壬子, 戊午;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2年 4月 壬子;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3年 4月 甲辰;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3年 6月 乙卯;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3年 7月 丁亥;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4年 4月 辛卯;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4年 8月 庚寅;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4年 10月 癸亥.

공민왕 7년(1358)부터 14년(1365)까지 여러 차례 보이는데, 이 시기는 중국 남부의 한인 세력들이 활발히 세력을 키워나가며 원 또는 한인 세력 간에 경쟁이 활발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고려의 세력을 이들이 원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6) 羅鐘宇, 「高麗 末期의 麗·日 關係」, 『전북사학』 제4집, 전북사학회, 1980, pp.53~54.

17) 원래 막부의 수장인 쇼군(將軍)도 병란이 있을 때 임시로 토벌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는 임시직(權官)이었고, 그 권한도 최대 1만 2천명을 이끄는 데 한정되었다. 다이쇼군(大將軍)은 3군, 즉 3명의 쇼군의 위에 위치한 자리이다. 그러던 쇼군이라는 명칭이 막부의 수장으로 변형된 것은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면서 부터인데, 헤이케(平家)와의 대결에서 이겨 정권을 차지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는 1190년 권대납언 우근위대장(權大納言 右近衛大将)에 임명되자 교토에 머물러야 했다. 독립적인 무가정권을 생각한 요리토모가 관심을 보인 것이 1184년 키소 요시나가(木曾義

이 된 막부는 차츰 조정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¹⁸⁾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마쿠라 막부 후기, 고사가(後嵯峨)가 치천의 군(治天の君)으로서 원정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막부의 영향력이 컸다. 이 때문에 그는 후에 상황(上皇)으로 추대할 사람을 막부에 일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사가 다음으로 고후카쿠사(後深草)와 카메야마(龜山)가 차례로 왕위에 올랐으나 치천의 군이 되는 사람은 하나였고, 이를 두고 고사가는 차기상황의 선택권을 본인이 아닌, 자신을 지지했던 막부에 일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후카쿠사와 카메야마의 사이는 대립하게 되었고, 양 세력은 서로 치천의 군과 덴노(天皇)의 지위를 요구하며 막부를 상대로 공작을 벌인다.¹⁹⁾ 이들은 고후카쿠사의 계통인 다이카쿠지통(大覺寺統)과 카메야마 계통인 지묘인통(持明院統)으로 양분하게 되었다. 이후 왕위 계승과정에서 막부의 입김이 작용되었고, 지속해서 왕위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되면서 막부에서 10년을 기한으로 두 계통이 번갈아 계승하도록 했다. 고다이교(後醍醐)의 즉위는 이런 상황 속에서였다.²⁰⁾

고다이교는 왕위 계승은 원래 형인 고니조(後二條)의 어린 아들이 즉위하기 전까지 왕위를 맡고 있다가 그가 성인이 되면 왕위를 물려주는 위치였다. 따라서 상황이 되어도 치천의 군이 될 수 없었으므로 고다이교의 불만은 커졌다. 이것은 왕위 계승을 보장하는 막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토막(討幕)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왕위에서 물러나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렇지만 이미 막부에 대한 반감은 고다이교 측을 비롯한 상당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었다. 고다이교의 아들인 모리요시(護良)와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로 대표되는 이른바 악당(惡黨)의 존재가 그것이었다. 이들의 활약과 나와(名和)가문의 도움으로 유배지에서 탈출에 성공한 고다이교는 반 막부 거병을 하게 된다. 이를 진압하러 내려온 막부 측 인물이 아시카카 다카우지(足利尊氏)인데, 그는 막부를 버리고 고다이교 측의 편에 섰다.

친위 쿠데타에 성공한 고다이교는 가마쿠라 막부 멸망에 성공하고 친정(親政)

仲)가 받았던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이었다. 카마쿠라 막부 이후에 무로마치(室町)·에도(江戸) 막부에서도 막부의 수장을 쇼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쇼군은 대를 이어 승계했지만 원칙상으로는 조정의 하위 임시직이었다. (阿部猛, 『日本古代官職辞典』, 同成社, 2011, pp.361~362. 참조)

18) 조큐의 난(承久の乱)은 조큐(承久) 3년(1221)에 고토바(後鳥羽) 상황이 카마쿠라 막부 토벌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난 병란(兵亂)을 말한다. 무가정권인 막부 성립 이후에 정치상황은 교토의 공가정권(公家政權, 조정)과 더불어 양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난의 결과 막부로 정권의 추가 기울어, 조정의 권력이 제한받았으며 막부가 조정을 대신해 분쟁 조정도 담당했으며 로쿠하라탄다이(六波羅探題)를 개설해 조정을 견제하였다.

19) 아사오 나오히로 외, 『새로 쓴 일본사』, 창비, 2009, p.182.

20) 아사오 나오히로 외, 위의 책, 2009, p.187.

정권인 겐무신정(建武新政)을 시행했다. 그렇지만 고다이고의 신정은 다시 정권을 되찾은 교토 조정을 대표하는 공(公=公卿)과 막부를 멸망시키는데 실질적 공을 세운 무(武=武家)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결국 아시카카 다카우지의 정권 찬탈로 그는 왕위에서 물러났고 이 자리는 과거 막부시기와 같이 왕위를 두 계통의 대립관계를 이용해 지묘인 계통의 코메이(光明)를 왕위에 올렸다.

이렇게 되었으나 고다이고는 체념하지 않고 교토를 탈출해 요시노(吉野)에서 계속해 왕위를 주장하며 남조를 열었다. 이로서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지묘인통의 북조와 요시노를 중심으로 하는 다이카쿠지통의 남조로 일본 정부는 둘로 나뉘게 되었다. 막부의 멸망부터 신정, 그리고 남북조의 분열의 과정을 통하면서 혼란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지역도 이 여파를 받아 정세가 불안정 하게 되었다.

아시카카 다카우지가 정권을 얻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1336년 패배한 다카우지는 규슈까지 도주해 왔다. 여기에서 재정비한 다카우지가 상경해 교토를 장악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상경직전 다카우지는 일족인 잇시키 도유(一色道猷)를 규슈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해 규슈지역의 실권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패배해 들어온 다카우지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북 규슈지역에 군림하던 요리히사(少貳頼尚)는 자신의 지위를 뺏기면서 잇시키 가문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요리히사는 다카우지와 대립관계에 있던 타다요시(直義)의 양자인 타다후유(直冬)에 주목하고 그가 규슈에 내려오자 여기에 응하게 된 것이다.²¹⁾ 한편 다카우지에게 밀려 남조를 열었던 고다이고는 자신의 세력을 집결하기 위해 아들인 친왕(親王)들을 각 지방에 내려 보냈다. 카네요시(懷良)도 이에 1341년 사쓰마(薩摩)에 들어와 규슈지역에서 세를 키워 나갔고, 키쿠치(菊池)가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해 규슈지역의 한 세력이 되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우선 다카우지가 규슈지역에 세운 막부 측의 잇시키와 남조 측의 카네요시, 그리고 막부 내부의 갈등으로 만들어진 분파인 타다후유 이렇게 규슈지역은 3개의 세력이 서로 물고 물리는 세력다툼을 하게 된다.²²⁾ 이렇게 규슈지역이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세력 다툼의 모양으로 흘러가면서 중앙정부인 북조의 막부에서는 규슈지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왜구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고, 왜구의 배후에는 규슈의 혼란 상황과 관련해 남조 혹은 북조 측의 군사적 활동과 관련 있는 무사단 혹은 악당과 같은 세력으로 추측할 수 있다.²³⁾

21) 佐藤進一, 「南北朝の動乱」, 『日本の歴史』, 2011, pp.269~270.

22) 이영,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 -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尚)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2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9, pp.156~158.

Ⅲ. 왜구의 침입과 조운체계의 붕괴

일반적으로 『高麗史』의 기록에 따라 왜인의 고려 침입이 처음 보이는 시기는 고종(高宗) 10년인 1223년으로 알려져 있지만²⁴⁾, 이보다 앞선 선종(宣宗) 10년인 1093년 연평도 근해에 송인과 왜인으로 구성된 해적단이 출몰한 사실이 있다.²⁵⁾ 하지만 실질적으로 왜구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기는 충렬왕 대에 들어서 시작하므로 13세기를 시작으로 고려 말 왜구의 침구가 빈번해짐을 알 수 있다.²⁶⁾ 다만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에서는 충정왕 2년(1350)년을 기점으로 왜구 내침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²⁷⁾, 이것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빈번하고 조직적인 왜구 침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초기 왜구의 침입을 충정왕 2년을 기점으로 공민왕 15년(1366)년 금왜사절(禁倭使節) 파견으로 한정해서 기한을 잡아 보면, 충정왕 대에 11차례, 공민왕 15년까지 16년 동안 69회에 걸쳐 침입했다.²⁸⁾ 초기 왜구의 침입은 가장 평범한 형

23) 사실 왜구의 주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일본인 학자인 다카카 다케오(田中健夫)나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의 경우 왜구의 주체를 고려의 혼란기를 틈탄 고려·조선인 주체설이나 고려·일본인 연합설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왜구가 고려·조선인 주체설이라면 고려 정부에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유일하게 조선 세종대의 이순몽의 상소문에 불과해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고려·일본인 연합설의 경우는 두 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왜구의 주체에 대한 연구는 일본측 연구로는 中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和書房, 1967;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 濟州島を中心として -」,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史学33, 1987; 浜中昇「高麗末期倭寇集團の民族構成 - 近年の倭寇研究に寄せて -」, 『歴史学研究』第六八五号, 1996; 太田弘毅, 『倭寇 - 商業・軍史的研究』, 春風社, 2002; 田中健夫, 『倭寇 - 海の歴史』, 講談社学術文庫, 2012. 등이 있고 한국측 연구로는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 '高麗·日本人連合'論, 또는 '高麗·朝鮮人主體'論의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5집, 한일관계사학회, 1996; 이영, 「왜구의 주체」,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이영,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 - 쇼노 요리히사(少貳頼尚)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2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9; 이영, 「〈고려 말·조선 초 왜구=삼도(쓰시마·이키·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의 비판적 검토」, 『일본문화연구』 제3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이영, 「〈경신년(1380)왜구=키쿠치씨(菊池氏)설에 관한 한 고찰 - 무력의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5집, 일본사학회, 2012; 李泰勳, 「〈삼도왜구〉의 〈삼도〉에 대한 이영 說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3호, 한일관계사학회, 2012. 등이 있다.

24) 『高麗史』 卷22, 世家, 高宗 10年 5月 甲子, “甲子倭寇金州.”

25) 『高麗史』 卷10, 世家, 宣宗 10年 7月 癸未.

26) 韓容根, 「高麗未倭寇에 對한 小考」, 『慶熙史學』, 경희대학교 사학회, 1980, p.2.

27) 『高麗史』 卷37, 世家, 忠定王 2年 2月; 『高麗史節要』 卷 26, 忠定王 2年 2月.

28) 왜구 침입 횟수는 羅鐘宇, 「高麗 末期의 麗·日 關係」, 『全北史學』 제4집, 全北史學會, 1980, p.62.의 표를 참조했다.

태인 바닷길을 통해 침입해 약탈을 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충정왕 대에 침입한 왜구의 침입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처음 왜구가 침입한 기점은 앞서서 살펴본 충정왕 2년 2월에 고성(固城)·죽림(竹林)·거제(巨濟) 등지였다. 이에 조정은 다음 달에 이권(李權)을 경상·전라도 도지휘사로, 유탁(柳濯)을 전라·양광도 도순문사로 임명했다.²⁹⁾ 처음 왜구가 침입한 고성·죽림·거제는 대마도에서 60~100km이내에 포함되는 비교적 짧은 항해 경로의 이유로 선택한 것 같다. 그리고 조운 규정에 대한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료 3-1) 주와 군의 조세(租稅)는 각각 부근에 있는 여러 창고들에 운반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 배로 나르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4월까지, 먼 곳에서는 5월까지, 경창(京倉)에로의 운반을 끝낼 것이며...³⁰⁾

수도까지 조세를 모두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 3~4월 이내에는 경상도 지역의 세곡이 집결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월에 고성을 비롯한 세 곳을 침입한 것을 봤을 때, 고려의 조운체계방식과 바닷길을 잘 알고 있는 왜구가 이것을 노리고 몰려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침입을 막아내면서 왜구 3백여 명을 죽였다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무리가 침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뒤이어 4월에 순천부(順天府)에 조운선을 약탈한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³¹⁾, 충정왕 2년 왜구들의 침구 목적은 대량의 세곡 약탈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끌고 온 배의 수만 해도 4월 100여 척, 5월 66척에 달하는데 이것은 결코 소수의 인원이 아니고 다량의 세곡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들을 이끌고 온 것이다.

공민왕의 즉위 이후에도 왜구의 조운선 약탈은 지속되었는데 공민왕 4년(1355)까지 조운을 목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료3-2) 여름 4월 기유일에 왜가 전라도 조선 40여 척을 약탈했다.³²⁾

* 사료3-3) 3월 경자일, 왜가 전라도를 침략하였다.³³⁾

29) 『高麗史』 卷37, 世家, 忠定王 2年 3月 庚辰.

30) 『高麗史』 卷79, 志33, 食貨, 漕運. “...州郡租稅各以附近輸諸倉翌年二月 漕運近地限四月 遠地限五月 畢輸京倉...”

31) 『高麗史』 卷37, 世家, 忠定王 2年 4月 戊戌.

32)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3年 4月 己酉, “倭掠全羅道漕船四十餘艘”.

* 사료3-4) 여름 4월, 신사일에 왜가 전라도 조운선 2백여 척을 약탈했다.³⁴⁾

계속되는 왜구의 조운선 약탈은 고려의 수운체계를 마비시켰다. 특히 ‘사료 3-2’부터 ‘사료3-4’까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3월과 4월에 같은 시기에 침입이 이뤄졌고 거기에 침입 지역도 전라도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전라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많을 뿐 아니라 우수한 해운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었고, 원 간섭기 이전에 국가에서 운영된 13개의 조창(漕倉) 가운데 거의 반절에 이르는 6개의 조창이 전라도에 소재하였다.³⁵⁾ 전라도 지역 자체에서 올라오는 세곡의 양도 많지만 이 지역이 계속해서 왜구의 침탈 목표지로 주목 받게 되면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세곡의 안전도 장담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 5년(1356) 정부는 세곡 운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 사료3-6) (공민왕 5년) 6월 을해일, “... 조운이 통하지 않아 무릇 수송의 일을 모두 육로로 따르게 하며 마땅히 해당 관청에 영을 내려 ...”³⁶⁾

결국 고려정부는 조운 체계의 붕괴 상황에 육로를 통한 세곡운반을 지시했다. 이것 때문인지 공민왕 4년 조운선 200척 약탈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공민왕 6년(1357) 개경 부근인 교동(喬桐)에 침입하는 것³⁷⁾ 이외에 약탈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운을 정지하고 육로를 통한 세곡운반은 임시방편이었다. 오히려 이런 ‘소극적 대응’은 전라도 해안을 통한 조운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 왜구들이 북상하거나 내륙지역으로 왜구 침입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한 동안은 전라도 해안을 이용해 세곡을 운반하지 않자 왜구가 교동을 비롯해 승천부(昇天府)에도 침입하며³⁸⁾ 세곡이 모이는 수도지역을 직접 공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만큼 왜구는 고려의 조운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약탈하고자 했고 이것은 고려 정부에 부담이 되었다. 특히 반복되는 왜구의 침입으로 조운이 불통하여 백관들의

33)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4年 3月 庚子, “三月 庚子 倭寇全羅道”.

34)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4年 4月 辛巳, “倭掠全羅道漕船二百餘艘”.

35) 한정훈,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부산대학교, 2009, p.199.

36)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5年 6月 乙亥, “...漕運不通, 凡所轉輸, 皆從陸路, 宜令有司...”.

37)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6年 5月 戊子.

38)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6年 9月 戊戌, 왜구가 승천부의 흥천사를 공격한 이유는 여기에 충선왕과 한국공주의 초상화가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충선왕의 영정을 모신 사찰이므로 원찰(願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당량의 곡식과 값나가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왜구들이 이곳을 공격했을 것이다.

봉록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왜구의 심각성은 더해갔다.

- * 사료3-7) 공민왕 6년 9월에 녹봉을 나누어주었다. 이때, 왜구로 인해 조운이 불통하여 9품의 관원들은 녹을 주지 못했다.³⁹⁾
- * 사료3-8) (공민왕 7년) 여름 4월에 도평의사사에서 계하기를 “요즘 왜인의 침입으로 인해 조운이 통하지 않습니다. 백관의 봉록을 지급하지 못하니...”⁴⁰⁾

조운은 다량의 세곡을 배를 이용해 운반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제때에 도착하지만 왜구와 같은 상황을 맞아 임시로 선택한 육로 수송은 운송기간이 길어지고 운송자체에 생기는 폐단 등으로 기존의 세곡만큼 정부의 세금 수익과 같은 수준에 못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사료3-1’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곡을 운반하는 데에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육로로 급히 변경한 이후로 바로 다음해부터 문제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세곡 수입을 위해서 중국인을 이용한 호송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 방법도 실패로 돌아갔다.⁴¹⁾

- * 사료3-10) (공민왕 13년) 3월 전라도의 조운선이 왜구에 막혀 통하지 않았다. 왕이 경기우도병마사 변광수(邊光秀)와 좌도병마사 이선(李善)에게 명하여 (전라도에) 가서 (조운선을) 보호하게 하였는데, 적을 만나 대패하였다.⁴²⁾
- * 사료3-11) (공민왕 13년) 여름 4월 정유일에 전라도 도순어사 김횡(金鉉)이 조운선을 이끌고 내포(內浦)에 이르러 왜인과 전투를 치렀으나 패배하여 대부분이 전사했다.⁴³⁾

왜인의 약탈에 정부가 내놓은 첫 방침은 육로 수송이었다. 그렇지만 백관들의 녹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해운을 통해 세곡을 운반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대책 없이 조운제도를 복구시키면 이를 노리는 왜구가 약탈하기

39) 『高麗史』卷80, 食貨3, 祿俸, “六年 九月 頒祿時 因倭寇漕運不通 九品祿科不給”.
40) 『高麗史節要』卷27, 恭愍王, 7年 夏4月, “都評議使司啓 近因倭寇 漕運不通 百官俸祿不給...”.
41)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7年 秋7月.
42)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3年 3月.
43)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3年 4月.“夏四月 丁酉 全羅道都巡禦使金鉉, 以漕船, 至內浦, 與倭戰, 敗績, 死者大半.”

때문에⁴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게 된다. ‘사료3-10’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조운이 왜구의 약탈로 통하지 않자 조정에서 내놓은 대책은 군을 이용한 호송이었다. 이것은 앞서 중국인 용병을 이용한 호송 방법에서 더 나아가 직접 관군을 이용해 세곡운송에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만큼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다. 다음 ‘사료3-11’에서도 보이듯 관군은 전투에 적합한 수군체계가 아닌 단순한 호송수준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수전에 익숙한 왜구에게 공격을 당하면 대다수가 전사하였고 정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원래부터 조운을 노리고 침입하는 왜구에 대한 대응으로 육로이용이나 군을 이용한 호송은 애초부터 ‘소극적 대응’이었고 피해만 반복될 뿐이었다.⁴⁵⁾ 우왕 대에는 전라·양광·경상도 지역의 조운이 폐지되면서⁴⁶⁾ 오히려 왜구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약탈을 하게 되면서 여러 군현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뿐이었다.⁴⁷⁾

IV. 고려의 초기대응 실패와 문제점 인식

1. 고려의 대(對) 왜구 군사대응의 실패

왜구가 침입하여 조운선을 약탈하는 동안 고려군은 철저히 왜구 진압에 실패한다. 충정왕 2년 왜구의 첫 침입에는 합포에서 왜구를 격파하고 3백여 명을 죽이는 성과를 거둔다. 왜구가 침입하자 즉각적으로 약탈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지만 왜구의 침입이 고려의 지역점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운선이나 세곡이 모이는 곳을 노리게 되면서 작전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더불어 관청에 방화를 하면서 고려의 지방행정을 마비시켰다.⁴⁸⁾ 또 왜구는 주로 육로가 아닌 배를 타고

44) 『高麗史』 卷39, 世家, 恭愍王, 10年 8月.

45) 『高麗史』 卷43, 世家, 恭愍王, 21年 2月 庚辰. 공민왕 21년(1372)에도 계속된 조운선 약탈로 재차 육로 운송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가 반복되었으나 왜구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없는 고려 정부로써는 육로운송과 같은 임시대책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46) 『高麗史』 卷133, 列傳, 辛禰, 2年 閏9月.

47) 조운의 육로 변경이로 내륙지역으로 진출하는 수로나 육로상의 거점지역, 내륙으로 접근이 용이한 연해지역의 군현이 다시 왜구의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 (朴宗基,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제 24호, 한국중세사학회, 2008, p.185.)

48) 이영,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17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p.108.

바다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인 고려의 모든 지역이 왜구의 표적지였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막고서 방어하는 방식으로는 이를 방어하기에 용이하지 않았다. 외적의 침입이 벌어지면 그 주요 침입로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방어 체계를 갖추고 방어사를 임명하지만 왜구의 경우는 이런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충정왕 2년 이후 공민왕 원년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고려의 정규군이 왜구와 전투를 벌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겠다.

그렇지만 왜구를 만나 싸우게 되더라도 왜구의 기세에 고려군은 이기지 못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본은 정규군 이상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규슈지역의 무사단·악당·해적세력으로 구성되었고 게다가 이들은 대륙과 고려에 대한 군사적 정보를 여몽연합군의 침입 이후부터 계속했었다.⁴⁹⁾ 따라서 고려군은 패배를 거듭하는데, 왜구에 대한 승리기록은 소수의 배를 포획하거나 몇몇을 포로로 잡는 정도에 그치는데⁵⁰⁾ 직접 전투가 아닌 정세를 살피는 선봉대를 잡은 경우로 생각된다. 오히려 왜구가 고려의 각산방어소에 들어와 배 3백여 척을 불태우는 피해를 입게 된다.⁵¹⁾ 공민왕 9년(1360)에는 강화에서 심몽룡(沈夢龍)이라는 사람이 13명을 베고 난 뒤 죽은 기록도 보이는데⁵²⁾, 그는 고려군에 포함된 인물이 아니었으므로 왜구 침입 후 10년 넘게 고려의 정규군은 왜구 방어에 성공하지 못했다.

물론 고려군이 왜구를 격파한 기사도 보인다. 공민왕 13년(1364) 경상도 도순문사가 왜적 3천을 진해에서 대파한 사건⁵³⁾이 바로 그것인데, 당시의 왜구는 앞뒤 시간을 생각해 추측해보면 3월과 4월에 전라도의 조운선을 약탈하고 전라도 지역군과 전투한 그 왜구⁵⁴⁾와 다음 달 해풍군(海豊郡)에 침입한 왜구⁵⁵⁾의 군단으로 파악된다. 경상도 도순문사가 격파한 왜구의 수는 3천에 이른다고 하지만 수급을 어느 정도 배었는지, 포획한 배의 척 등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다음 달에 바로 왜구가 해풍군(海豊郡)에 침입하는 것을 보더라도 왜구의 전술상 후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사를 그대로 이해해 대파한 것으로 파악하면 3천이 대패한 이후 왜구가 재정비를 갖추어 다음 달에 바로 약탈행위를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후에도 왜구의 약탈은 지속되었는데, 특히 공민왕 20년(1371)의 기사를 보

49)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화교류기금 편,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9, p.246.

50) 『高麗史』 卷38, 世家, 恭愍王 1年 7月 壬申.

51) 『高麗史』 卷39, 世家, 恭愍王 7年 3月 己酉.

52) 『高麗史』 卷39, 世家, 恭愍王 9年 閏5月 丙辰.

53) 『高麗史』 卷40, 世家, 恭愍王 13年 5月.

54) 『高麗史』 卷40, 世家, 恭愍王 13年 4月.

55) 『高麗史』 卷40, 世家, 恭愍王 13年 6月.

면 왜구 침입으로부터 20년이 넘는 시점까지도 왜구에게 고려 수군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 (사료4-1) 가을 7월, 계축일에 왜적이 예성강을 침입하여 병선 40여 척을 불살랐다. 병마사 김입견(金立堅)을 곤장을 쳐서 안산으로 귀양 보냈다.⁵⁶⁾

왜구가 개경근처까지 올라오는 사건은 앞서서 여러 차례 있었고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의 사건은 그야말로 고려 수군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수도 근처인 예성강에 왜구가 침입해 전투를 통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병선 40척이나 잃은 것이었다. 고려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고려의 육군인 진수군의 경우도 왜구 방어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진수군은 주로 도(道)단위로 각 주현에서 징발된 양인 장정(壯丁)으로 조직되어 도내의 방수처(防戍處)에 교대로 번상(番上)했다.⁵⁷⁾ 이들은 육지에 상륙한 왜구를 방어 격퇴하다가 평상시에는 둔전(屯田)에 동원되었다.⁵⁸⁾ 그렇지만 이들이 왜구를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진수군의 병졸은 오합지졸로서 훈련도 엄하지 못하였고 방어시설이나 무기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방수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 침입하는 왜적을 막는데 허점이 많았다고 한다.⁵⁹⁾ 이렇듯 군사적 대응이 왜구 발호에 효과가 없자 대응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교섭을 통해 왜구근절을 요청했던 과거의 선례를 따라하게 된다.

2. 외교적 대응방식으로 변화와 문제점 인식

고려와 일본은 건국 이후부터 줄곧 친선관계를 유지했다.⁶⁰⁾ 그러나 13세기 몽고의 침입으로 부마국이 된 고려는 몽고와 연합해 일본을 침공하게 되었고 이후 양

56) 『高麗史』卷43, 世家, 恭愍王 20年 秋7月, “秋七月 癸丑 倭寇禮成江, 焚兵船四十餘艘, 杖流兵馬使金立堅于安山”.

57) 權寧國, 위의 논문, 1994, p.250.

58) 『高麗史』卷82, 兵2, 屯田.

59) 權寧國, 위의 논문, 1994, p.252.

60) 문종대에 일본국 사신이 온 것을 시작으로 양국 간의 교류는 몽골의 침입 이전인 고종 14년 까지 지속된다. (『高麗史』卷7, 世家, 文宗 10年 冬10月; 『高麗史』卷22, 世家, 高宗 14年 5月.)

국 간의 교류는 끊기게 되었다.

그러나 왜구가 계속해 침입하자 고려정부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왜구의 근절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고려로서는 과거의 선례에 따라 일본 정부에 외교적 요청을 하게 되면 일본 측에서 이에 대한 통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⁶¹⁾

* 사료4-2) (공민왕 15년) 11월 임진일에 검교중랑장 김일(金逸)을 보내어 일본에 해적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⁶²⁾

고려정부가 당시 일본에 사신을 보낸 내용을 『高麗史』에는 '사료4-2'처럼 간단하게 서술했고 이에 대한 전후 상황을 서술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사신들이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외교 문서를 통해 전후 상황을 추측해보도록 하자.

* 사료4-3) ... 지정 10년(1361) 경인일에 해적 선단 다수가 귀국(일본)지방에서 와서 본성(本省, 고려)의 합포(合浦)등처의 관해(官廩)들을 불지르고 백성에게 소요(擾擾)를 일으켜 심히 죽은 자가 많다. 피해가 10여 년간 이어져 선박이 통하지 않고 ... 삼가 엄히 (왜구를) 금지하여 다스려 주시길...⁶³⁾

이는 김용(金龍)을 비롯한 고려 사신들이 들고 간 것으로 추측되는 문서인데, 원본을 필사한 사본이다. 따라서 사본 과정에서 몇몇 오류가 발생하긴 했지만 외교의 목적을 크게 혼동할 만큼은 아니므로 비교적 신뢰가 가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사료4-3'는 김용의 일본사절단이 가지고 간 고려의 정동행중서성에서 발급된 왜구 금지 요청 문서이다. 이들은 공민왕 15년 8월에 출발했는데 중간에 왜구를 만나 일본에 보내는 선물을 빼앗기고 원래 도착하려던 이즈모(出雲)지역이 아닌 오키(隱岐)로 이동했

61) 이미 과거에 해적행위에 대해서 일본 측은 고려사신 앞에서 대마도의 '악당' 90인을 참수한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막부에서 공포한 '御成敗式目'에서 보여지듯 강력하게 중죄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를 선례로 삼아 고려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 왜구의 근절을 요청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金普漢, 「동(東)아시아 해역(海域)의 아웃로(Outlaw) -13,14세기 왜구(倭寇) 활동과 그 원인-」, 『일본역사연구』24호, 2006, p95.)

62) 『高麗史』卷41, 世家, 恭愍王, 15年 11月 壬辰, “壬辰 遣檢校中郎將金逸如日本, 請禁海賊”.

63) 「高麗國征東行中書省劄」, 『靑齋寺文書』(장동익, 『일본 고종세 고려자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참조) “...自正十年庚寅, 有賊船數多, 出自□(貴)國地面, 前來, 本省合浦等處, 燒毀官廩, 擾擾百姓, 甚至殺多, 出自□□(一十)餘年, 海舶不通...嚴加禁治...”

다. 여기서도 한참 머물다가 다음해 2월에야 교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이 가져간 문서의 내용은 고려의 함포 지역에 들어와 관청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한 왜구의 행위를 언급하고 이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한 것이다. 일본에 외교 사절단을 보낸 것은 충렬왕 18년(1292)으로부터 약 70년 만이었다.⁶⁴⁾ 무로마치 막부는 고려의 사신이 막부 개설 이후 처음 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 대접했다고 한다.⁶⁵⁾ 이를 통해서 막부측은 고려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서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고려와의 외교 교섭을 통해 남조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료4-2'을 보더라도『高麗史』에는 김일을 파견한 것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정부는 김용을 사절로 보낸 이후 김일을 동년 11월에 재차 사절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교토에 들어왔는데, 앞서 보낸 김용의 사절단은 중간에 왜구를 만났기 때문에 실무를 수행할 수준이 못되었던 것 같다.⁶⁶⁾ 이런 이유로 『高麗史』에는 김일을 파견한 것에 대한 기록만 남은 것 같다.

어찌되었든 고려에서는 4개월 동안 두 차례의 대일(對日)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당시 고려 정부가 왜구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절에 대해 막부는 고려를 침구하는 해적이 시코쿠(四國)와 규슈의 해적임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금압의 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막부에서는 사신을 보내서 김일 일행에 대한 답례를 했는데⁶⁷⁾ 이해에는 왜구의 조운선 약탈과 같은 기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년간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고려의 외교교섭이 성과를 거두는 듯 해보였다. 그렇지만 이미 막부는 규슈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앞서서 언급한 규슈지역에 막부 측 세력은 잇시키 가문이 있었으나 1355년 규슈에서 떠나 상경했고 이후에 막부에서 계속해 규슈탐다이(九州探題)를 임명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고려 사신이 일본에 온 시점에 이미 규슈지역은 막부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였다.⁶⁸⁾

그리고 왜구가 1년간 피해가 없던 것도 외교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4) 당시 사신단의 목적은 원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원에 입조(入朝)하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화교류기금 편, 위의 책, 2009, pp.243~244.)

65) 장동익, 위의 책, 2004, pp.251~252.

66) 일본에서도 이들 사신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일기류 사료인『後愚昧記』의 기록을 보면 貞治 6년 5월 9일 일본의 조정이 고려의 사신단을 보고 고려인인지 몽고인인지 판가름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장동익, 위의 책, 2004, pp.181~183.)

67) 『高麗史』 卷28, 世家, 恭愍王, 17年 春正月.

68) 이영,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 : 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pp.137~138.

- * 사료4-4) (공민왕 17년) 가을 7월에 대마도에서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쳤다.⁶⁹⁾
- * 사료4-5) (공민왕 17년) 11월, 대마도만호 송종경(崇宗慶)이 사신을 보내와 쌀 1천석을 내려주었다.⁷⁰⁾
- * 사료4-6) (공민왕 18년) 가을 7월, 거제 남해현에 투화한 왜인들이 배반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⁷¹⁾
- * 사료4-7) (공민왕 18년) 11월 아주(牙州)에서 왜의 배 3척을 잡고 포로 두 명을 바쳤다. … 왜가 영주·온수·예산·면주의 조운선을 약탈했는데, 애초에 왜인은 본래 거제에 거주하며 영원히 화친을 맺고자 했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믿고 허락했는데, 이에 이르러 도적으로 침입한 것이다.⁷²⁾

‘사료4-4’와 ‘사료4-5’를 보면 대마도에서 두 차례 예물을 바치고 11월에는 쌀 1천 석을 받아갔다. 또 ‘사료4-6’과 ‘사료4-7’에는 투화한 왜인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것을 미루어 추측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곡식을 받게 되어서 고려에 약탈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 해에 왜구기록이 없었던 것이고, 왜인들이 거제에 투화했다가 다시 배반하여 조운선을 약탈한 것은 이들 왜인들이 고려 영토 안에서 거주하며 일반적인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다시 왜구로 돌변한 것으로 추측된다.⁷³⁾

어찌되었든 고려의 외교적 대응도 실패로 끝난 것은 사실이였다. 공민왕 17년(1368)을 건너뛴 왜구의 침입은 공민왕 18, 19년에 각각 2차례, 20년에는 4차례로 증가하다 공민왕 21년(1372)에는 19회로 갑자기 증가했다. 이후 우왕(禡王) 원년

69) 『高麗史』 卷28, 世家, 恭愍王, 17年 秋7月, “己卯 對馬島萬戶遣使來, 獻土物.”

70) 『高麗史』 卷28, 世家, 恭愍王, 17年 11月, “十一月 丙午 對馬島萬戶崇宗慶遣使, 來朝, 賜宗慶米一千石.”

71) 『高麗史』 卷28, 世家, 恭愍王, 18年 秋7月, “辛丑 巨濟南海縣投化倭, 叛歸其國.”

72) 『高麗史』 卷28, 世家, 恭愍王, 18年 11月, “辛丑 巨濟南海縣投化倭, 叛歸其國…倭掠寧州·溫水·禮山·沔州漕船, 初倭人, 願居巨濟, 永結和親, 國家信而許之, 至是入寇.”

73) 일본의 해적은 원래 바다를 배경으로 살던 해민(海民)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얻을 경우 약탈행위로 변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高麗史』에 처음 왜구의 기록이 나타나는 고종 10년(1226)의 기록을 비롯해 비슷한 시기 왜구의 침입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원인은 앞서서 언급한 조규의 난과 연관이 있다. 중앙권력의 충돌인 위 사건으로 유래 없는 토지 몰수가 일본 서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는데 이것은 재지영주 및 지역민들의 생존에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이들이 해적으로 변화해 약탈을 하게 되었다. 즉, 경제기반이 흔들리거나 지역에서 거주할 명분이 없는 경우 해민들은 언제든지 해적이 되었다. (김보한, 「해적과 약탈경제 - 중세 일본 해적을 중심으로 -, 『동북아시아문화연구』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p.540.

(1375) 극심한 왜구 침입에 다시 외교 사절을 보냈지만 왜구의 침입 횟수는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이 시기 일본과의 외교사절 왕래를 통해 고려도 전혀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 사료4-8) (우왕 원년) 2월,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나흥유(羅興儒)가 글을 올려 일본과 화친하기를 청하니 이에 흥유를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했다.⁷⁴⁾

‘사료4-8’에서 보면 판전객시사 나흥유가 글을 올려서 일본과 화친하기 위해 자신을 사신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우왕 원년인 이 시점까지 고려 정부에서는 왜구의 발호가 일본과의 불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시점까지도 고려 정부는 왜구의 윤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이후 나흥유가 돌아오면서 고려 정부도 성과가 있었다. 우선 나흥유가 돌아온 직후의 사료를 살펴보자.

* 사료4-9) (우왕 2년) 10월, 나흥유가 일본으로부터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승려 양유(良柔)를 보내어 답례하였으며 ... 그 나라의 승려인 주좌(周佐)는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가 말하길 “우리나라 서해도 일대와 구주(具州)에는 난신들이 할거하고 있어 공부(貢賦)가 들어오지 않은지 20여 년이나 되었다. 서쪽 변경의 바닷길의 우매한 백성들이 틈을 엿보아 귀국을 침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장수를 파견해 토벌하는데, 그 땅에 깊이 들어가 양 측이 서로 싸우고 있다. 구주만 평정하면 하늘에 맹세하는바 해구(해적)를 금할 수 있다.”⁷⁵⁾

일본에서 나흥유가 돌아오면서 얻어낸 점을 위의 사료로 추측해보면, ㉠ 왜구는 일본 막부와 연관이 있는 세력이 아니다 ㉡ 구주지역은 막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74) 『高麗史節要』卷30, 列傳, 辛禰 元年 2月, “判典客寺事羅興儒, 上書請行成日本, 乃以興儒爲通信使遣之”.

75) 『高麗史』卷133, 列傳, 辛禰 2年 10月, “冬十月, 羅興儒, 還自日本, 日本, 遣僧良柔來報聘...其國僧周佐, 寄書曰維我西海道一路九州, 亂臣割據, 不納貢賦, 且二十餘年矣, 西邊海道頑民, 觀勢出寇, 非我所爲, 是故朝廷, 遣將征討, 深入其地, 兩陣交鋒, 日以相戰, 庶幾克復九州則, 誓天指日, 禁約海寇”.

상황이다 ㉔ 막부는 왜구 발호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⁷⁶⁾ ㉕ 여몽원정 이후 끊겼던 여일관계가 정상화 되고 있다 ㉖ 외교적 노력으로는 왜구의 발호를 막을 수 없다 와 같이 다섯 가지의 소득도 있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는 왜구를 근절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다. 막부 측에서도 규슈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 정부에 알려주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에게 사실을 알려준 것은 왜구 문제의 기본이 되는 것은 규슈지역의 분열이고 이를 진압해 막부의 통제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고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에도 막부와 고려정부 측은 긴밀하게 왜구문제를 서로 협력했는데, 우왕 3년(1377)에는 승려 신흥(信弘)을 보내와 해적을 금지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했⁷⁷⁾, 고려에서는 정몽주를 답례로 보내 노략행위에 대한 어려움을 다시 전하며 막부의 노력을 부탁했다.⁷⁸⁾ 고려와 막부의 긴밀한 외교 교섭으로 일본군이 고려로 군사를 보내 왜구를 체포하거나⁷⁹⁾, 포로로 잡혀간 고려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⁸⁰⁾ 외교적 교섭으로 왜구 근절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고려 정부에서는 왜구의 근절은 고려 정부가 스스로 무력을 이용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점차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V. 해양방어(海洋防禦)의 재인식과 적극적 대응

1. 해양방어론의 대두와 수군의 재편

충정왕 2년 왜구의 고려 침입 이후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

76) 위의 사료에서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일본 측 사료인 『愚管記』를 살펴보면 永和 2년(1376) 5월 3일 조에 고려의 첩을 전달받자 이를 국가의 중대사로 다루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동익, 위의 책, 2004, p.45.)

77) 『高麗史』 卷133, 列傳, 辛禡 3年 8月.

78) 『高麗史』 卷133, 列傳, 辛禡 3年 9月.

79) 『高麗史』 卷133, 列傳, 辛禡 4年 6月.

80) 『高麗史節要』 卷31, 辛禡 5年 秋7月; 『高麗史』 卷135, 列傳, 辛禡 10年 8月.

어나면서 수군을 이용해 왜구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즉 해양방어론이 제기된다.

* (사료5-1) 근년에 왜적이 우리 강토로 침범해 ... 오늘의 대책으로는 두 가지 밖에 없으니 그 하나는 육지에서의 수비요 또 하나는 해상의 전투입니다. ... 해전의 방책을 말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 섬에 주민이 무려 백만은 될 것인데 그들은 배를 부리고 헤엄치는 것이 그들의 장기이며 또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어로와 제염(製鹽)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근래에 왜적 때문에 직업을 잃고 집을 떠나 생활 방도를 잃게 되었으므로 적을 원망하는 마음이 육지 사람에 비해 어찌 열배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 하나를 보내 명백히 제시된 법령을 가지고 해변 일대에서 초모시키고 상을 약속대로 주면 수천의 대군을 단시일에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 추포사(追捕使)로 하여금 그들을 영솔하고 언제나 배 위에 있게 하면 고을들은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도적은 격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육지 수비는 우리의 측을 공고화하는 길이고 해상 전투는 그들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두 가지를 다 보장할 것입니다.⁸¹⁾

공민왕 초기 이색(李穡)은 왜구의 방책을 두고 육지에서의 방어와 해전을 통한 요격을 주장했다. 특히 주목 할 점은 해안의 주민들은 바다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을 징발해 왜구를 공격하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왜구의 침입으로 생업을 잃은 어민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적개심을 왜구 공격에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색이 주장한 것 가운데 ‘(그들이) 언제나 배 위에 있게 하면(領之常在船上)’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수군의 재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수군을 배에 태워 바다를 순찰 한다는 비교적 적극적인 해양방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구절의 의미는 왜구가 출몰하면 나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이 스스로 왜구를 찾아 방어하는 방식을 설명 하는 것으로 상당히 흥미롭다. 그렇지만 이색의 주장은 실제로 고려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해 왜구의 피해가 지속되자 다시 해양방어에 대한 주장이 등장하게 된다.

81) 각주 9의 사료 참조.

공민왕 22년(1373) 우현보 등의 상소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 (사료5-2) (공민왕 22년) 5월에 간관 우현보 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적이 물에서 배를 잘 몰므로 물에서 싸워서
 는 안 되는데 만약 전함을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 백성들을 거듭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적
 을 육지 싸움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적을
 물리치고 적의 폭행을 막는 것은 기본이 백성을 위하는 일인데
 백성들에게 좀 폐해가 된다고 염려해서 나라에 큰 걱정거리를 남
 겨 둥니까? 지금 동서강에 다 방어군이 지키고 있지만 가령
 바다에 적이 의기양양하게 떠 온다면 우리 군사들은 해안에서 보
 고만 있을 것이니 비록 정예한 군사가 백만이 있다 해도 물에서
 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함선을 만들고 무기를 잘 갖
 추어 강을 따라 내려가서 요충지를 방어한다면 적이 아무리 수전
 에 능하다 해도 바다를 뛰어서 건너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리
 하여 형세가 유리할 때에 즉시 포위한다면 적을 반드시 소탕할
 것입니다.”⁸²⁾

우현보는 공민왕 22년까지 왜구의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 아직
 도 육전의 우선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함선을 만들고 수군을 재정비해서
 바다위에서 왜구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연안과 육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는 바다에서 직접 막아야 한다는 해양방어론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앞서서 살
 펴봤듯이 진수군은 왜구를 막기에 적당하지 않았고 내륙으로 왜구가 들어온다면 방
 어를 하더라도 피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현보는 바다에서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다. 이색에 비해서 우현보의 의
 견은 수용될 가능성이 더 있었는데, 이유는 당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구가 지
 속해서 침략했으며 외교적 교섭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런 해양방어론은 다음 해에 다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료5-3) (공민왕 23년) 정월에 검교중랑장 이희(李禧)가 글을 올리기를

82) 각주 10의 사료 참조.

“지금 왜구의 침입이 치열해 지는데 배를 조종할 줄 모르는 연호민(煙戶民)을 물에서 싸우게 하므로 매번 패배하게 됩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자라났으므로 일찍이 수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바다 섬에 나가 사는 사람 또는 배 조종에 익숙하고 자원해 나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적을 친다면 5년 동안이면 바다에서 적을 완전히 숙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중랑장 정준제(鄭准提)가 글을 올려 왜구 방어 대책을 말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이희(李禧)를 양광도 안무사로 임명하고 정준제를 전라도 안무사로 삼아(왜인 추포(追捕) 만호를 겸하게 하여 ...⁸³⁾

위의 내용은 공민왕 23년(1374)에 이희와 정준제(후의 정지) 등이 군사적 대응의 실패 원인으로 왜구 방어에 쓰이는 수군이 육지 출신이므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앞서 이색이 주장한 것처럼 연안이나 섬의 민들을 모아 수군을 재편하고 이들로 하여금 왜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군을 이끌고 나가 요격하는 방식을 주장하면서 우현보의 주장과 더불어 해양방어의 방식에 선제공격도 주장했다. 이희와 정준제의 주장은 왕의 승인을 받아 이들을 왜구 방어의 선봉에 세웠다. 공민왕 23년을 기점으로 대 왜구 대응책이 수세에서 공격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양방어의 전환에 있어서 고려 정부가 생각한 것과 달리 현실에는 무리가 있었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 (사료5-4) 처음에 6도 도순찰사 최영이 배 2천척을 만들어 6도군으로 배를 타고 왜구를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집을 헐고 군역을 도피하는 자가 10명중 5~6명이나 되었었는데, 준제 등이 건의하자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⁸⁴⁾

해양방어를 공세적으로 취하기로 결정되자 최영을 총 책임자로 임명해 수군을 재편하여 왜구를 소탕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 이유로는 해양방

83) 『高麗史』卷83, 兵3, 船軍, “二十三年正月 檢校中郎將李禧上書曰, “今倭寇方熾, 乃驅烟戶之民, 不習舟楫者, 使之水戰, 每至敗績. 臣生長海邊, 曾習水戰, 願率海島出居民, 及自募人, 慣於操舟者, 與之擊賊, 期以五年, 永清海道.” 中郎將鄭准提, 亦上書獻策, 王大悅, 以禧爲楊廣道安撫使, 准提, 爲全羅道安撫使兼倭人追捕萬戶...”.

84) 각주 73의 사료 참조.

어의 작전 전환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군역은 일반 민들에게 있어서 기피하는 것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왜구의 발호가 20년이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에 징집되어 가는 것을 백성들은 부담으로 여겼다. 그런 이유로 공세로 전환해야한다 주장했던 정준제가 건의하여 일단 중지 되었다.

동년 3월, 해양방어의 공격적 전환은 다시 시행되었다.⁸⁵⁾ 재차 최영을 경상·전라·양광도의 도순문사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전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헌사에서 반대해 다시 무위에 그쳤다. 그렇지만 공민왕 23년의 이희와 정준제의 간언으로 수군은 만호부 체제로 정비되어갔다고 생각된다.⁸⁶⁾ 수군의 체제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짐작 할 수 있다.

* (사료5-5) (공양왕 원년) 10월에 박인우(朴麟祐)를 양광좌우도 수군도만호(楊廣左右道 水軍都萬戶)를 삼고 지를 내려 말하였다. “도내(道內)의 병선을 거느리고 만호·천호·영선두목인(領船頭目人) 등의 능부(能不)를 살펴서...”⁸⁷⁾

수군은 각도를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최고 책임자는 도만호이고 그 아래로 만호와 천호 영선두목인 등의 계통으로 지휘체계가 갖춰졌다고 기술되어 있다. 만호와 천호는 각 도의 포(浦)에 주둔하며 수군과 병선을 지휘하였고, 영선두목인은 각 병선의 지도자로 추측된다. 이외에海道원수(海道元帥)의 존재도 보이는데, 이들과 만호의 관계는 동서북면의 만호와 원수의 관계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⁸⁸⁾ 공양왕 2년(1390)에는 만호를 연해 각처에 배치하는 모습⁸⁹⁾을 보아 수군 만호체계가 수군의 지휘계통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군 지휘계통과 더불어 수군의 모집은 다음과 같았다.

* (사료5-6) (공양왕 3년) 도당이 계하길, “바닷가의 인민을 불러 모으되, 3정(丁)을 1호(戶)로 삼아 수군으로 삼도록 정하고, 모든 도의 바닷가의 전토는 조세를 거두지 말고 수군의 처자를 부양하게 하십시

85) 『高麗史』卷44, 世家, 恭愍王 23年 3月 乙未.

86) 權寧國, 위의 논문, 1994, p.259.

87) 『高麗史』卷83, 兵3, 恭讓王, 卽位年 10月, “恭讓王元年 十月 以朴麟祐 爲楊廣左右道水軍都萬戶 下旨曰 領道內兵船 察其萬戶·千戶·領船頭目人等 能否有不能者擇...”.

88) 權寧國, 위의 논문, 1994, p.260.

89) 『高麗史』卷45, 世家, 恭讓王 2年 春正月.

오.” 라고 하니, 이에 좇았다.⁹⁰⁾

- * (사료5-7) (우왕 3년) 10월에 시진의 상인들을 내어 해도의 군으로 충당하였다.
(우왕 4년) 2월에 5부방리군을 뽑아 배를 타고 왜적을 잡게 하였다.
(우왕 13년) 4월에 경기 좌·우도의 군인을 뽑아 기선군으로 삼고
동·서강의 왜구를 막게 하였다. ⁹¹⁾

‘사료5-7’의 기록으로 보건데 우왕대에는 아직 수군을 따로 뽑지 않고 상인들이나 기존의 군에서 임의로 뽑아 충당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사료5-6’의 기록으로 보면 수군을 연해의 거주민 가운데 3정 1호로 삼아 뽑고 조세를 따로 거두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양왕대에 접어들면서는 왜구의 침입 횟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수군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구의 침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고려 정부에서 해양방어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수군의 체계적인 정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에 옮긴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수군이 재편되면서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남부 연해지역의 군의 중심이 수군이 되었고 이들은 지방 군사력의 주력이 되었다.⁹²⁾

2. 방어체계의 재정비와 성과

해양방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공민왕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군사력 증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무기 개량도 이뤄진다. 전함을 새로 건조하거나 화약 무기를 시험하는 모습⁹³⁾이 그것인데, 특히 공격무기에 화약을 적극 사용하는 것은 공격적 해양방어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고려는 화약 공급을 명에게서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⁹⁴⁾ 그렇지만 이는 쉽지 않았는데⁹⁵⁾, 명나라로서 화약은 기밀이었기 때

90) 『高麗史』 卷83, 兵3, 恭讓王, 3年, “三年 都堂啓曰 召募海邊人民 三丁爲一戶 定爲水軍 諸道濱海之田 不收租稅 以養水軍妻子 從之.”

91) 『高麗史』 卷83, 兵3, “辛禰三年 十月 出市廩商賈 以充海道之軍, 四年 二月 僉五部坊里軍 令乘船捕倭, 十三年 四月 僉京圻左右道軍人 爲騎船軍 以防東西江倭寇.”

92) 고려 말 왜구 격퇴 과정에서 양과 질적으로 성장한 수군은 남부 6도의 지방군사력의 7할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강화 되었다.(權寧國, 위의 논문, 1994, p.262.)

93) 『高麗史』 卷44, 世家, 恭愍王 22年 冬10月 乙亥.

94) 『高麗史』 卷44, 世家, 恭愍王 22年 11月.

95) 고려가 요청한 화약 공급을 명은 완곡하게 거절하였는데 국내의 수요가 많음을 핑계로 내세웠다.(高麗史) 卷44, 世家, 恭愍王 23年 6月.)

문에 그리고 화약을 보내 왜구진압에 사용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고려가 무장을 강화한다면 명으로는 적에게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에는 명이 고려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 데에도 있다고 하겠다.⁹⁶⁾

따라서 고려는 화약 공급이 어렵게 되자 직접 제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중심에는 최무선(崔茂宣)이 있었다.

*** (사료5-8) (우왕 3년) 처음으로 화통도감(火桶都監)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판사 최무선(崔茂宣)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최무선이 원나라 화약 제조 기술자(焰炮匠) 이원(李元)과 한 동리에 살면서 대우를 잘해 준 다음 그에게 은근히 화약 제조 기술을 물어보고 자기 집 하인 몇 명에게 이를 전습시켜 시험해 본 다음 마침내 나라에 건의하여 화통도감을 설치케 한 것이다.⁹⁷⁾**

최무선이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을 얻은 것은 원의 화약 제조 기술자인 이원이 라고 한다. 고려는 화약 제조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탓에 왜구 방어에 화포 이용을 할 수 없었다. 화약 제조 비법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던 탓에 쉽게 알아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최무선이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고 이를 무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고 승인이 되었다. 이후 고려 조정은 왜구 방어에 효과적인 화약 제조에 대한 지원을 계속했고, 화통도감에서는 화약과 함께 화포류도 생산했음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놀라고 감탄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포의 발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⁹⁸⁾

화포 개발은 이후로 계속되었는데, 우왕 6년(1380)에 화포가 전투에서 그 빛을 발한다.

*** (사료5-9) (우왕 6년)8월에 해도 원수 나세(羅世), 심덕부, 최무선(崔茂萱)**

96) 고려와 명의 관계는 명이 건국한지 1년 3개월 만에 정식으로 교섭의 길이 열리면서 평화적이고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그러나 고려 내부에는 아직 친원 세력이 존재했고, 요동지역을 장악한 명은 이후로 위압적 태도를 보였다. 공민왕 22년(1373)년 명에서 귀국한 사신들이 가져온 홍무제의 선유(宣諭)에는 고려에 대한 의혹, 불성실 등을 힐난하기도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2013, pp.339~364.)

97) 『高麗史』卷133, 列傳, 辛禡 3年 10月, “始置火桶都監, 從判事崔茂宣之言也, 茂宣與元焰炮匠李元同里閭, 善遇之, 竊問其術, 令家僮數人, 習而試之, 遂建白置之, 修京城, 倭賊四十艘寇東萊縣.”

98) 김기섭, 「高麗後期 崔茂宣의 생애와 화약제조」, 『한국중세사연구』26, 한국중세사학회, 2009, p.287.

을 보내 전함 백 척을 인솔하고 왜적을 추격하여 잡았다.⁹⁹⁾

- * (사료5-10) (우왕 6년) 8월 나세·심덕무·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처음으로 만든 화포를 써서 그 배를 불태우니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넘쳤다. 왜적이 거의 다 타죽었고 바다에 빠져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¹⁰⁰⁾

위의 ‘사료 5-9’부터 ‘사료5-11’까지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가 왜구 공격에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있다. 왜구는 병선 500여 척을 이끌고 진포에 정박한 이후 내륙으로 침투해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탈한 곡식을 진포로 보내 수송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최무선을 비롯한 고려 수군은 이곳으로 나아가 화포를 이용해 배를 모두 불태우고 배를 지키던 적병마저 몰살했다.¹⁰¹⁾ 이 전투에서 최무선은 대승을 거두고 고려인을 구출하였다.¹⁰²⁾ 이 전투로 고려에 침입한 대규모 왜구 약탈군단은 내륙으로 피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륙의 피해가 있었으나 황산 전투 등을 통해 이들은 진압되었다.¹⁰³⁾ 이후 왜구의 침입에 고려는 적극적 공격을 펼쳤다.海道원서 정지는 47척의 배로 적선 120여 척을 상대로 해전에서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는 모습도 보인다.¹⁰⁴⁾

왜구 격파에 자신감을 얻은 고려는 더욱 더 적극적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다. 정지가 올린 글을 살펴보자.

- * (사료5-12) (우왕 13년) 가을 8월 정지(鄭地)가 글을 올려 동쪽(일본)을 치기를 자청하여 말하기를 “왜국은 온 나라가 도적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이 대마와 일기 두 섬을 나누어 점령하였는데, 합포와 가깝기 때문에 무시로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이니, 만일 죄를 성토하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그 소굴을 전복시킨다면, 변방의 근심이 영구히 없어질 것입니다.¹⁰⁵⁾

99) 『高麗史』卷134, 列傳, 辛禡 6年 8月, “八月 遣海道元帥羅世·沈德符·崔茂宣, 以戰艦百艘, 追捕倭賊, 禡獵于城南”.

100) 『高麗史節要』卷31, 辛禡 6年 8月, “羅世沈德符崔茂宣等, 至鎮浦, 始用茂宣所製火砲, 焚其船, 煙焰漲天, 賊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101) 『高麗史』卷114, 列傳27, 羅世.

102) 김기섭, 위의 논문, 2006, p.290.

103) 『高麗史』卷134, 列傳, 辛禡 6年 9月.

104) 『高麗史節要』卷32, 辛禡 9年 5月.

정지는 왜구에 대한 해양방어를 넘어 왜구의 근원지를 공격해 근절하고자 하는 주장을 한다. 이 배경에는 고려의 수군이 정비되고 무기의 수준이 개량되면서 적의 본거지를 공격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지의 의견은 2년 뒤 박위가 대마도를 공격하게 되면서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

* (사료5-13) (창왕 원년) 2월, 경상도원수 박위(朴葳)가 병선 1백 척을 거느리고 대마도를 쳐서 왜적의 배 3백 척과 막사를 불살라 거의 없애버렸다. 원수 김종연(金宗衍)·최칠석(崔七夕)·박자안(朴子安) 등이 잇달아 이르러 사로잡혀 갔던 백성 1백여 명을 찾아 돌아왔다.¹⁰⁶⁾

* (사료5-14) 또 전함 100척을 가지고 대마도(對馬島)를 공격하여 왜군의 선박 300척과 그 근방 해안의 건물들을 거진다 불살라버렸다. ¹⁰⁷⁾

위의 사료 두 개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보이는 박위의 대마도 공격에 대한 기사이다. 비로소 고려 수군이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공격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위가 이끈 병선은 경상도 지역의 수군이였다. 즉, 수군의 일부를 이용해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무선의 화약 무기 개발 이후 적은 수의 아군으로 다수의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수군의 재정비, 화약 무기의 개발과 같은 적극적인 대 왜구 방어 정책은 이색-우현보-이희로 이어지는 해양방어에 대한 재인식 주장에서부터 비롯된다. 해양방어가 단순히 들어온 적을 맞이해 방어하는 수준에 그쳐 있었다면 고려의 지방사회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고, 조운체계의 붕괴에 더불어 지방 행정·생산체계마저도 완전히 붕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해양방어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재편하였던 것이 왜구 방어에도 효과적이었고 더불어 강한 수군을 보유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105) 『高麗史節要』卷32, 辛禩 13年 秋8月, “鄭地, 上書, 自請東征曰, 倭非學國爲盜, 其國叛民, 分據對馬一岐兩島, 隣於合浦, 入寇無時, 若聲罪大舉, 覆其巢穴則, 邊患永除矣...”.

106) 『高麗史節要』卷34, 恭讓王 己巳元年(辛昌元年) 2月, “慶尙道元帥朴葳, 以兵船一百艘, 擊對馬島, 燒倭船三百艘廬舍殆盡, 元帥金宗衍, 崔七夕, 朴子安等, 繼至, 搜被虜民百餘以還...”.

107) 『高麗史』卷116, 列傳, 朴葳, “又以戰艦百艘, 擊對馬島, 燒倭船三百艘 及傍岸廬舍殆盡.”.

VI. 맺음말

14세기 왜구의 침입은 고려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충정왕 2년부터 공양왕 4년까지 506회에 이르는 침입 기록이 보이는 데,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더라도 왜구의 침입은 최소 2대에 걸친 사회적 문제였다. 왜구의 침입으로 조세 체계인 조운이 마비되었고, 연해의 군현들은 약탈·살인·방화로 피해가 심각했다.

고려는 왜구가 침입하자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연해에서 방어하거나 진수군과 같은 지방 군제를 왜구에 맞춰서 재편했고, 외교 사신을 통해 침입을 막고자 했다. 이렇듯 고려의 초기 기본 전략은 왜구의 침입 시에 대응하는 소극적 대응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은 단순히 소규모 약탈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왜구의 배경에는 지방통제가 되지 않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었다.

14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내부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였으나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해 다시 한 번 무가정권이 등장해 남북조로 조정이 나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편승한 규슈의 무사단, 악당, 해상 세력들이 세력을 나눠 분열하면서 왜구가 파생되었다. 따라서 왜구의 무력은 정규군 그 이상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의 이완된 수군체제로 왜구를 방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우선 고려는 외교적인 교섭으로 왜구의 방어를 노렸다. 기존에 왜구의 금압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던 사례를 따라서 사절단을 보냈다. 그렇지만 일본 내의 국내 사정을 알지 못했던 고려의 오판이었고, 효과적인 왜구방어에는 당연히 실패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외교적 교섭으로 일본 국내 사정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성과도 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외교적 교섭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해양방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주장하는 의견이 등장한다. 이희나 우현보 등이 그들인데, 이색은 그들보다 먼저 해양방어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이색-우현보-이희-정지 등으로 이어지는 공격적인 전략 전환 주장은 고려가 해양방어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고려 말 해양방어의 중요성 재인식은 수군의 재편과 강화, 그리고 화약 무기의 개발 등으로 이어져 강력한 수군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성공한다. 이것은 진포를 비롯한 해양 전투에서의 승리로 이어졌으며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고려는 왜구의 본거지를 공격하는 대마도 공략에도 나서게 된다.

고려가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이 주로 북방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고려는 북방의 이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에 집중했으나 바다의 전략적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고, 왜구의 침입은 해양방어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진 시점인 고려 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양방어의 재인식을 통해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수군재편·무기강화 등 무력을 상승시키면서 왜구 방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세기 왜구의 침입과 고려의 해양방어의 재인식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와 주변 국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해양 영토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자국령 주장이나, 중국의 이어도 소유권 주장과 같은 한국과 중·일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분쟁 등과 같이 동아시아는 현재도 해양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건전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해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사료 및 단행본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2013.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화교류기금 편,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9.
- 이영, 「왜구의 주체」,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장동익, 『일본 고증세 고려자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아사오 나오히로 외, 『새로 쓴 일본사』, 창비, 2009.
- 阿部猛, 『日本古代官職辞典』, 同成社, 2011.
- 佐藤進一, 「南北朝の動乱」, 『日本の歴史』, 2011.
- 田中健夫, 『倭寇-海の歴史』, 講談社学術文庫, 2012
- 中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和書房, 1967.

* 학술논문

-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22호, 한국중세사학회, 2007.
- 權寧國, 「고려말 지방군제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창간호, 한국중세사학회, 1994.
- 김기섭, 「高麗後期 崔茂宣의 생애와 화약제조」, 『한국중세사연구』26, 한국중세사학회, 2009.
- 김남규, 「고려의 수군제도」, 『고려군제사』육군본부, 1983.
- 金普漢,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문화사학』22호, 한국문화사학회, 2004.
- _____, 「동(東)아시아 해역(海域)의 아웃로(Outlaw) -13,14세기 왜구(倭寇) 활동과 그 원인 -」, 『일본역사연구』24호, 2006.
- _____, 「해적과 약탈경제 - 중세 일본 해적을 중심으로 -」, 『동북아시아문화연구』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 羅鐘宇, 「高麗 末期의 麗·日 關係」, 『전북사학』 제4집, 전북사학회, 1980.
- 노영구, 「조선초기 水軍과 海嶺職의 변화」, 『한국사론』33, 1995.
- 朴宗基,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제 24호, 한국중세사학회, 2008.
- 신성재, 「태봉의 수군전략과 수군운동」, 『역사와 경계』75집, 2010.
-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 '高麗·日本人連合'論, 또는 '高麗·朝鮮人主體'論의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5집, 한일관계사학회, 1996.
- _____,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17호, 한국중세사학회, 2004.
- _____,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黨) - 우왕 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24집, 일본사학회, 2006.
- _____,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 : 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 _____, 「고려 말 왜구와 남조-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31집, 한일관계사학회, 2008.
- _____,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 -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尚)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26호, 한국중세사학회, 2009.
- _____, 「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36호, 한일관계사학회, 2010.
- _____, 「오호바루(大保原) 전투(1359년)와 왜구 - 공민왕 6-8년(1357~59)년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1집, 일본사학회, 2010.
- _____, 「〈고려 말·조선 초 왜구=삼도(쓰시마·이키·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의 비판적 검토」, 『일본문화연구』 제3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 _____,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시아문화연구』31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 _____, 「〈경신년(1380)왜구=기쿠치씨(菊池氏)설에 관한 한 고찰 - 무력의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5집, 일본사학회, 2012.
-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30호, 고려사학회, 2008.
- _____, 「고려 전기 수군의 운영」, 『사총』60,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5.
- 李泰勳, 「〈삼도왜구〉의 〈삼도〉에 대한 이영 說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43호, 한 일 관계사학회, 2012.
-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 『사학연구』38, 한국사학회, 1984.
- 채응석, 「어말선초 泗川 지방의 埋香活動과 地域社會」, 『한국중세사연구』20호, 한국중세 사학회, 2006.
- 최연주, 「14세기 왜구의 경상도 侵寇와 書籍간행」, 『일본근대학연구』 제35집, 한국일본근 대학회, 2012.
- 韓容根, 「高麗末倭寇에 對한 小考」, 『慶熙史學』, 경희대학교 사학회, 1980.
- 한정훈,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부산대학교, 2009.
- _____, 「고려 후기 漕運制의 운영과 변화」, 『동방학지』 제5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 濟州島を中心として -」, 『名古屋大学 文学部研究論集』史学33, 1987.
- 浜中昇, 「高麗末期倭寇集團の民族構成 - 近年の倭寇研究に寄せて -」, 『歴史学研究』第六八五号,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Waegu(倭寇)'s invas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Ocean Defence in the Late Goryeo(高麗) Dynasty.

Lee Do-Won*

Waegu(倭寇)'s invasion in the Late Goryeo(高麗) Dynasty was huge damage for Goryeo's local society. And It was shock that Goryeo government's basic foundation of rules. Invasion background of waegu for Kyeong-in-yeon(庚寅年, 1350) was Kyushyu(九州)'s political divide because of Nihon(日本) government's confusion. Waegu was huge damage for Goryeo's Jo-wun(漕運, the shipping system of grain paid as a tax) system. So, government started military response, but it was turn out a failure and had great damage.

When execution of military operations failed, Goryeo government sent diplomatic delegation to request the prevent of waegu, but the invasion continued. Since waegu invasion, Goryeo was got nowhere with defence of waegu. So, some people demanded for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in the government.

Lee-Saek(李穡), Woo-Hyeonbo(禹玄寶), Lee-Hee(李禧) and Jung-Ji(鄭地) were representatives of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Their demands were received attention when all operations had been failed. Therefore, Goryeo government began to reorganization of the naval forces and set up a special committee of gunpowder manufacturing named Hwa-tong-do-gam(火筒都監). This administrative reform was achieved

* The master's course,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substantial results since then. In 1380, the naval battle at Jin-po(鎭浦) was a big event that first gunpowder attack the waegu. Since Jin-po, Goryeo's naval forces gain confidence. In 1389, Dae-ma-do(對馬島) was attacked by Park-Wi(朴葦). It was meant that Goryeo's naval forces had huge offense power.

Goryeo's defence system was focused on a northern race before 14th century waegu's invasion. So they were neglected their ocean defence. But after military operation of waegu's invasion was failure, they focused on the ocean defence.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was foundation of that.

It means to us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ocean defence. Now, East Asia has maritime disputes. And we have high exposure to potential threats. So, we have a new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the ocean defence. And we fight for 21th century's ocean threats as foundation of sense of national security.

Key words: The Ocean Defence, Waegu(倭寇), Jo-wun(漕運), Lee-Saek(李穡), Woo-Hyeonbo(禹玄寶), Lee-Hee(李禧), Jung-Ji(鄭地), Jin-po(鎭浦), Hwa-tong-do-gam(火筒都監), Park-Wi(朴葦)